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기도문

1989년, 성령으로 충만한 문익환¹ 목사는 남북간 비무장지대 (DMZ)²를 통과하여 남한에서 북한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문 목사님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탱크와 총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습디다. 경비병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상의 공간에서 만남을 갖고 있지만, 그의 여정에 우리도 동행할 수 있을까요? 문익환 목사가 것처럼 걸어가는 일처럼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칠푼 속에 있는 그 땅 위를 하느님의 사랑의 바람을 타고,
우리들의 마음의 날개를 펴서 우리도 동일한 걸음을 걸어가 봅시다!**

하느님께서 주신 푸르른 강산으로 이뤄진 하나의 작은 반도가 강대국들에 의해 70년이 넘게 두 개로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생겼고, 친구들이 서로 만날 수 없었고, 심지어 문화와 언어도 이질화 되었습니다. 오랜 역사의 그 땅에 아직도 냉전이 지속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기쁨의 샘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3 세대에 걸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국경을 마주하고 서로 갈등하며 적대시하도록
배웠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희망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지요. 단순히 희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전쟁 종식을 위한 길을 적극 모색합니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히 우리는 당국자들의 문을 두드리며, 공식적인
평화를 구하는 바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느님께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익환 목사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며 DMZ을 통과하면서 그가 보았던 바로 그 빛, 그리고 그가 불렀던 바로 그 노래를 우리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아무런 경계도 세우지 아니하시며,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느님,
그분의 최초의 언어인 칠푼 속에서, 바로 그 하느님을 앙망합니다.**

[침묵 기도]

오! 우리에게 평화의 비전을 주시는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여,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의 진보적이며 위험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불가능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벽들이 무너져
내렸고, 권리들이 보호를 받았으며, 대량학살은 종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북한 당국자들의 손에 들린 펜을 향하여 “들리어져 70년 전쟁의 종식에 서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는 그 땅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느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고통의 행성을 치유하시겠다는 당신의 놀라운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북쪽의 백두산에서부터 남쪽의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전역에 휘날리는 정의의 깃발을 향한 문익환 목사의 비전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¹ 문익환 목사 (1918-1994), 한국 기독교 장로교 목사, 한국의 통일과 민주화의 평생을 헌신

² 1953년에 설정된, 북위 38도 인근의 남한과 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 또는 완충 지역.